

# 드라마 볼 게 없네



이리와 안아줘



혼남정음



대군



우리가 만난 기적

호황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불황인 적이 없었다.

한 주에도 신작 드라마가 몇 개씩 전파를 타고, 한 해에 100편이 넘게 제작된다지만 '눈이 번쩍'할 만한 작품은 없다. 그러는 사이 시청률 두 자릿수는 케이블 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조차 '거대한 벽'이 돼버렸다.

◇ 평일극, 시청률 두 자릿수 사라지다  
KBS 2TV 월화극 '우리가 만난 기적'이 종영하면서 채널과 관계없이 평일 미니시리즈에서 두 자릿수 시청률을 볼 수 없게 됐다. '우리가 만난 기적' 역시 닐슨코리아 기준으로 10%를 합계 넘은 수준이었다.

시청률이 1%대까지 떨어졌던 MBC TV가 최근 '검법남녀'와 '이리와 안아줘'를 통해 분위기 반등을 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안정적인 성적을 보인 SBS TV는 '가림집 멜로'와 '혼남정음'이 부진에 빠지는 등 크고 작은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침체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로서는 tvN 등 케이블이나 JTBC 등 종합편성채널들과 시청률 차이가 별반 없어진 셈이 돼 부족한 자본과 치열해진 경쟁, 이종고에 빠진 셈이 됐다.

물론 비지상파 채널들도 근근이 화제성 높은 작품들이 스쳐 가기는 했으나 지난해 초 시청률 20%를 넘기며 케이블 채널 역사를 새로 쓴 tvN '도깨비' 이후로 이렇다 할 대작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속에서도 드라마 편수는 자꾸 늘어난다. 지상파는 기본이고 tvN과 OCN 등

## 지상파·케이블 치열한 경쟁 불구 평일 두 자릿수 시청률 찾기 힘들어 중국 한한령 완화 앞두고 콘텐츠 부실

CJ E&M 역시 공격적으로 드라마 편성을 늘리고, TV조선 주말극 '대군'이 시청률 5%를 넘기며 선방하면서 종합편성채널들도 다시 하나둘씩 드라마 시장에 뛰어든다.

◇ 높아져만 가는 제작비...출혈경쟁 속 부익부 빈익빈  
'방송은 돈'이라는 공식은 드라마에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높아지는 스타 몸값에, 제작자들의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제작비가 날로 증가하면서 드라마 제작도 갈수록 자본력의 싸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들은 상대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너도나도 앓는 소리다.

한 지상파 드라마국 고위 관계자는 5일 "예를 들어 우리 기준에서 드라마 단가의 최대치가 평당 4억원이 라면 실제로 드는 비용은 5억~6억원 정도가 돼버렸다. 배우 개런티도 수천만원 올랐고, 제작 비용도 급상승했는데 광고는 다른 채널에 쏠리니 갈수록 우리 자본력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첫 방송 예정으로 스타작가 김은숙이 집필해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스터 션샤인'이 수백억원 제작비 규모를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지상파에 드라마 존재 가치는 '시청률 견인'과 '광고 수익 창출'인데,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저하하면 결국 '다이어트'에 들어가지 않을지 싶다"며 "드라마를 아예 없애진 못하겠지만 블록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 글로벌 시장 속 부실 콘텐츠 우려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세밀한 전략하에 이뤄진다면 반길 일이지만, 내물릴 데까지 내물려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되면 결국 콘텐츠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달 12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현지 최대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2년 만에 한국관이 재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와 기대되는 가운데 자신 있게 내세울 콘텐츠가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 방송국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제작비가 올라가다가 선이 넘으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내부적으로 제작은 확 줄이고 다른 나라 작품을 사다가 쓰는 현상이 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 업체들까지 국내 드라마 제작에 속속 뛰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한 차례 토종 산업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지상파 드라마국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각종 방송 규제를 풀 건 풀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승기·수지 '배가본드'서 화끈한 재회

'구가의 서' 이후 5년만에 호흡



가수 겸 배우 이승기(31)와 수지(24)가 첩보 액션 드라마 '배가본드'로 '구가의 서' 이후 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홍보사 3HW COM.은 "이승기와 배우지가 드라마 '배가본드'에서 각각 스텔트맨 차근 역과 국정원 블랙오프 고해리 역을 맡아 화끈한 재회를 한다"고 5일 소개했다.

'배가본드'는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에서 찾아낸 거대한 국가 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과정을 담는다. 가족도, 소속도, 이름도 없는 방랑자들의 위험천만한 모험이 치밀하면서도 장대하게 펼쳐진다.

연출은 '사이언트', '셀러리너 초한지', '돈의 화신', '너희들은 포위됐다', '미세스캅', '낭만닥터 김사부' 등을 만든 유인식 PD가 맡아 기대를 모은다. 또 유 PD와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장영철·정경순 작가가 대본 집필을 맡았다.

소니 픽처스가 해외배급을 맡아 한국, 미국, 일본 동시방영을 목표로 하는 '배가본드'는 셉티콘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다. 지난 2일 첫 대본리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아이들

MBC,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특집 8일 방영

MBC TV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8일 오후 12시 20분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과 함께 준비한 특집 'MBC와 좋은 친구들'을 방송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방글라데시와 마다가스카르의 아동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아동 노동 근절을 목표로 2002년에 제정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아동 노동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992년 이미 아동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 노동 금지 조례를 발표했지만, 현지 공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아동이 위험한 기계 앞에서 쇠파를 날리며 냄비를 만들고 있다.

방송에서는 배 위에서 주식을 해결하는 사이폴, 빈민가 쓰레기 수거장에서 하루 열두 시간 악취를 견디며 일하는 또푸, 굶지 않기 위해 안전 장비도 없이 운송용 돌을 깨는 쌍둥이 형제 대니와 제르베,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마다 강물에 뛰어드는 프랑스까지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 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중 MBC 뉴스 투데이 50 이별이 떠났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45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00 파도야 파도야 40 거기가 어디에??	30 930 MBC 뉴스 50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10 좋은아침 45 중계방송 현충일 추념식
10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	50 특선영화 <당신, 거기있어줄래요>	50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스페셜	
11	00 영상앨범 산(재) 2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 8부작 로드 투러시아			00 SBS 뉴스 10 혼남정음 모아보기 1~8회
12	00 KBS 뉴스 10 한국인의 밥상(재)	45 슈츠 (재)	05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2018 지방선거 법정토론 <시구청장 후보>	50 2018 프로야구 <두산:백선>	45 MBC 뉴스 55 2018 프로야구 <KIA:kt>	50 2018 프로야구 <한화:LG>
2				
3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 대한민국의 상대는 <스웨덴>			
4				
5	00 KBS 뉴스 10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30 속보이뉴스인사이드(재)	40 살맛나는 세상	30 집사부일체 1~2부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2TV 생생정보	25 담양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7	00 KBS 뉴스 7 35 현충일 특집다큐 내 사랑	50 인형의 집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50 연설방송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8	25 내일도 맑음	30 불쇼 이영표 55 살리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연설방송 민영삼 전남지사 후보
9	00 KBS 뉴스9			00 영재발굴단
10	0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 10 시사토론 '10'	00 슈츠	00 이리와 안아줘	00 혼남정음
11	05 KBS 뉴스라인 40 떠오르는 물산업 골든타임을 잡아라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시사기획 창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달다리 백숙과 참나물 겨자냉채>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민속스포츠 마을의 민속놀이 중국 강족의 쾌유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융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미안마 축제에 빠지다 깨달음의 땅>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심심산골, 심심해서 좋아 2부 숲 속의 작은 정방>
09:00 엄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0:30 한국기행(재)	16:15 융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6일(음 4월 23일 己巳)

子	36년생 공상에 사로잡히면 망신살이 뻗는다. 48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60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 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72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84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로다. 행운의 숫자 : 75, 45	午	42년생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54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자. 66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78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90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8, 99
丑	37년생 보람된 결실을 얻는다. 49년생 소폭적인 진전이지만 의미는 있다. 61년생 정오를 정확하게 가려라. 73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85년생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운의 숫자 : 35, 27	未	43년생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55년생 유혹에 빠진다면 손재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라. 67년생 발 빠른 실행 분석이 절실하다. 79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으니라. 91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6, 21
寅	38년생 현명한 판단이 잠재적 생산성을 강화시킨다. 50년생 습관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62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74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86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2, 86	申	44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56년생 시종일관 단단하게 대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68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80년생 핵심적인 원리를 파악하자. 92년생 쉽게 효과를 보겠다. 행운의 숫자 : 53, 68
卯	39년생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51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63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 될 것이다. 75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87년생 참모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4, 83	酉	45년생 탄력적으로 대처 해야겠다. 57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93년생 이론이나 예단이 아니라 실행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03, 63
辰	40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52년생 지나간 일이 사람들의 화젯거리로 대두된다. 64년생 남의 일에 나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76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모나지 않고 등글게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34, 51	戌	34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과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46년생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자. 58년생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70년생 완전성을 도모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82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큰 가닥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44
巳	41년생 선의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53년생 구도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작용하는 계제이니라. 65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77년생 평상시 대로만 진행하라. 89년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로우리라. 행운의 숫자 : 49, 36	亥	35년생 아무런 지장이 없다. 47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자. 59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71년생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실수를 방지하라. 83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82, 61